

생물 다양성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다양한 지형은 여러 가지 생물의 서식지와 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경작 가능하고 토양에 회분이 풍부한 도카치 평야에서는 예로부터 농업이 번성했습니다. 시카오이 북부에 위치한 시카리베쓰 산지에는 풍요로운 생태계와 미시생태계가 있어 다양한 이끼류와 지의류 외에도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유존종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빙하기의 살아있는 화석

시카리베쓰호 주변의 풍혈이 있는 산들의 사면은 **에조우는토끼의 서식지입니다.** **에조우는토끼**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 등의 한랭지역에 서식하는 북방우는토끼의 아종으로 홋카이도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는토끼**는 크기가 사람의 주먹만 하며, 체중은 약 120g으로 매우 작아 쥐처럼 보이지만 **토끼의 일종입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대륙으로 연결하던 랜드 브리지(육교)를 건너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카리베쓰의 산에 있는 풍혈은 추위가 충분히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어, 에조우는토끼의 중요 먹이원인 백산차 등의 고산식물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인 진화

시카리베쓰호의 보석이라 불리는 미야베 곤들매기는 이곳 외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미야베 곤들매기**는 곤들매기의 아종으로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를 이뤄왔습니다. 수만 년 전 시카리베쓰 중상화산의 형성에 의해 이 주변 하천이 막히며 시카리베쓰호가 탄생했는데, 이때 강에 살던 곤들매기가 호수에 갇힌 것입니다. 곤들매기는 해발고도가 높고 먹이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혹독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윽고 플랑크톤을 주된 영양원으로 삼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곤들매기에는 **새파가** 21 또는 22 개 있는 반면 미야베 곤들매기에는 26 개 붙어있습니다.

다종다양한 이끼류

시카리베쓰호 주변 숲은 이끼류로 덮여있으며, 풍혈이 있는 울퉁불퉁한 사면에도 이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끼로 인해 빗물이 흡수되어 땅에 수분이 유지되고 주변 환경의 습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도 잘 자랍니다. 또한, 풍혈이 이끼로 덮여있어 봄과 여름에 얼음 녹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 1 만 종 이상 존재하는 이끼류 중 1,600 종이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에서 자라는 고유종에는 구슬이끼, 타조이끼, 발광이끼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종의 물이끼가 있습니다. 시카리베쓰호 지역은 일본선테류학회에 의해 귀중한 이끼 숲으로 지정되었습니다.